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진 미 화
(전주교육대학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 학교, 사회 속에서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은 가정에서 주로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격을 형성하고 적응하는 것에 비해, 학령기 이후에는 아동의 생활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게 되면서 폭넓은 사회관계로 확대된다.

아동이 가정과 학교에 잘 적응하는가의 여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결정하고, 이후 성인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아동들은 학교생활 가운데서 많은 부적응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아동의 학교부적응의 한 원인으로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애착(attachment)이란 용어는 Bowlby(1958)가 최초로 사용한 개념으로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매우 강렬하고 지속적인 감정적 유대관계를 뜻한다. 또한 최근에는 애착의 개념을 평생에 걸쳐 계속 형성·유지되는 것이라는 전 생애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유경자, 2005; 지수경, 2001).

애착의 전 생애적 발달 이론에 따라 아동기에도 부모와의 지속적인 애착과 깊은 관계를 맺고 발달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 연구들은 전 생애에 걸쳐 애착이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어머니와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한 영·유아는 또래 관계가 더 활발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도 더 성취지향적인 경향을 보인다(고경애, 1984). 애착은 또한 아동들의 학업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의 적응(김광자, 2003; 정세화, 2003)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한 아동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정영옥, 2002) 연구에서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이 아동의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청소년들의 학업과 자아존중감 등 학교생활적응과 긍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오송희, 1998)고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애착안정성이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요인을 부모애착 관계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즉,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전제하에 이들 요인이 성별, 학년별, 모직업 유무별에 따라 어떠한지 알아보고 이것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착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아동과의 상담과정에 활용함으로써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자료를 제공하며, 부모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연구 문제

- 가.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성별, 학년, 모의 직업 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나.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학교생활적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 K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2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2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모두 회수한 결과, 한 부모 자녀이거나 검사문항이 누락된 경우, 이중응답이 있는 경우 등 응답에 성실성을 보이지 않은 10부를 제외한 250부를 통계 처리 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의 직업이 없는 아동은 13(5%)명으로 통계적으로 집단간 비교가 유용하지 않아 연구문제 설정 시 배제하였으며, 모의 직업이 있는

아동은 145(58%)명, 모의 직업이 없는 아동은 105(42%)명으로 집단간 비교가 유용하여 모의 직업 유무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2. 측정도구

가. 부·모에 대한 애착 검사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를 옥정(1997)이 번안하여 사용한 개정본(IPPA-R)을 재사용하였다.

IPPA-R은 의사소통은 9문항, 신뢰감은 10문항, 소외감은 6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의 문항 내용은 동일하다. 문항 형식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하위요인인 의사소통과 신뢰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으며 소외감은 점수가 낮을수록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에 대한 애착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의사소통 .81, 신뢰감 .67, 소외감 .51, 모에 대한 애착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의사소통 .79, 신뢰감 .66, 소외감 .57 이었다.

나. 학교생활적응 검사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설문지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선모(1979)의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영역과 이상필(1990)의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로 교사관계, 학교친구, 학습활동, 학교규칙, 학교행사를 각 5문항씩 선택하여 총 2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교사관계 .68, 교우관계 .68, 학습활동 .72, 학교규칙 준수 .78, 학교행사 .62 였다.

3. 자료 분석 및 처리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대상 아동들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고, 학년별, 성별, 모직업 유무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것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부에 대한 애착관계

가. 부에 대한 애착관계

<표 Ⅲ-1> 부에 대한 애착의 학년별, 성별, 모직업 유무별 평균 및 표준편차

학년	성별	모직업	N	M	SD
1학년	남	유	34	3.85	.48
		무	25	4.10	.49
		소계	59	3.96	.50
	여	유	33	4.13	.65
		무	27	4.14	.60
		소계	60	4.13	.62
	합계	유	67	3.99	.59
		무	52	4.12	.54
		소계	119	4.05	.57
2학년	남	유	33	3.90	.63
		무	24	4.02	.52
		소계	57	3.95	.58
	여	유	45	4.11	.45
		무	29	4.03	.40
		소계	74	4.08	.43
	합계	유	78	4.02	.54
		무	53	4.02	.46
		소계	131	4.02	.50
전 체	남	유	67	3.87	.55
		무	49	4.06	.50
		소계	116	3.95	.54
	여	유	78	4.12	.54
		무	56	4.08	.50
		소계	134	4.11	.52
	합계	유	145	4.01	.56
		무	105	4.07	.50
		소계	250	4.03	.54

<표 III-2> 학년별, 성별, 모직업 유무별 부에 대한 애착의 차이 검증

변량원	SS	df	MS	F
학년	.10	1	.103	.36
성별	1.13	1	1.13	3.98*
모직업유무	.34	1	.34	1.20
학년 * 성별	.03	1	.03	.09
학년 * 모직업유무	.20	1	.20	.71
성별 * 모직업유무	.73	1	.73	2.57
학년 * 성별 * 모직업유무	.01	1	.01	.02

* p<.05

앞의 <표 III-1>을 기초로 하여 학년별, 성별, 모직업 유무별 전체 부에 대한 애착 점수를 변량 분석한 결과는 위의 <표 III-2>와 같다. 아동의 부에 대한 애착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F=3.98, p<.05), 여자 아동(M=4.11, SD=.52)이 남자 아동(M=3.95, SD=.54)보다 부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나. 하위요인별 부에 대한 애착

연구 대상 아동의 부에 대한 애착의 하위 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 <표 III-3>과 같다.

<표 III-3> 부에 대한 애착의 하위 영역별 비교

()안은 인원수

변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M	SD	M	SD	M	SD
학년별	1학년(119)	4.05	.78	4.11	.56	3.98	.74
	2학년(131)	4.01	.75	4.05	.54	4.08	.52
성별	남(116)	3.93	.76	4.03	.59	3.93	.72
	여(134)	4.11	.76	4.12	.54	4.12	.54
모직업	유(145)	4.02	.77	4.05	.60	3.97	.71
	무(105)	4.03	.76	4.12	.52	4.11	.50
1학년	모직업유(67)	4.00	.76	4.08	.62	3.81	.59
	모직업무(52)	4.06	.78	4.14	.57	4.20	.75
2학년	모직업유(78)	3.97	.79	4.01	.58	4.12	.52
	모직업무(53)	3.93	.75	4.11	.48	4.02	.52

<표 III-4> 학년별, 성별, 모직업의 유무별 부에 대한 애착 의사소통의 차이 검증

변량원	SS	df	MS	F
학년	.47	1	.47	.80
성별	2.08	1	2.08	3.51
모직업유무	.01	1	.01	.02
학년 * 성별	.32	1	.328	.54
학년 * 모직업유무	.08	1	.08	.13
성별 * 모직업유무	.53	1	.53	.90
학년 * 성별 * 모직업유무	.02	1	.02	.04

학년별, 성별, 모직업 유무별 부에 대한 애착의 의사소통 점수를 변량 분석한 결과는 위의 <표 III-4>와 같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III-5> 학년별, 성별, 모직업의 유무별 부에 대한 애착 신뢰감의 차이 검증

변량원	SS	df	MS	F
학년	.18	1	.18	.56
성별	.36	1	.36	1.10
모직업유무	.44	1	.44	1.34
학년 * 성별	.00	1	.00	.00
학년 * 모직업유무	.06	1	.06	.19
성별 * 모직업유무	.72	1	.72	2.23
학년 * 성별 * 모직업유무	.13	1	.13	.40

학년별, 성별, 모직업 유무별 부에 대한 애착의 신뢰감 점수를 변량 분석한 결과는 위의 <표 III-5>와 같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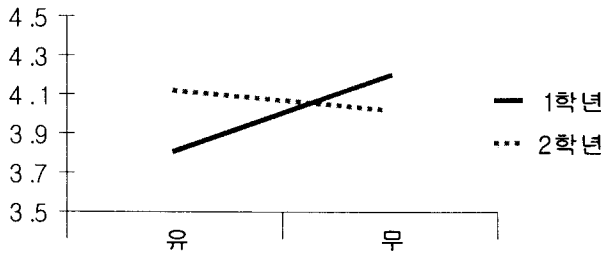
<표 III-6> 학년별, 성별, 모직업의 유무별 부에 대한 애착 소외감의 차이 검증

변량원	SS	df	MS	F
학년	.14	1	.16	.44
성별	1.60	1	1.60	4.26*
모직업유무	1.37	1	1.37	3.65
학년 * 성별	.05	1	.05	.13
학년 * 모직업유무	3.50	1	3.50	9.28**
성별 * 모직업유무	1.10	1	1.10	2.91
학년 * 성별 * 모직업유무	.52	1	.52	1.37

* p<.05, ** p<.01

학년별, 성별, 모직업 유무별 부에 대한 애착의 소외감 점수를 변량 분석한 결과는 위의 <표 III-6>과 같다. 아동의 부에 대한 소외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를 나타냈으며

($F=4.26, p<.05$), 그 내용을 보면 남자 아동($M=3.93, SD=.72$)이 여자 아동($M=4.12, SD=.54$)보다 소외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년과 모직업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한 차를 나타냈다($F=9.28, p<.01$). 그 내용을 보면 1학년에서는 모의 직업이 있는 아동($M=3.81, SD=.59$), 2학년에서는 모의 직업이 없는 아동($M=4.02, SD=.52$)의 부에 대한 소외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1]. 그러나 학년과 모직업 유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성별과 모직업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와 학년과 성별, 모직업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그림 III-1] 부에 대한 애착 소외감의 학년과 모직업 유무와의 상호작용 효과

2. 모에 대한 애착관계

가. 모에 대한 애착관계

학년	성별	모직업	N	M	SD
1학년	남	유	34	3.93	.62
		무	25	4.32	.44
		소계	59	4.09	.58
	여	유	33	4.35	.33
		무	27	4.27	.54
		소계	60	4.31	.43
	합계	유	67	4.14	.54
		무	52	4.29	.49
		소계	119	4.20	.52
2학년	남	유	33	4.21	.45
		무	24	4.26	.44
		소계	57	4.23	.45
	여	유	45	4.34	.34
		무	29	4.18	.39
		소계	74	4.28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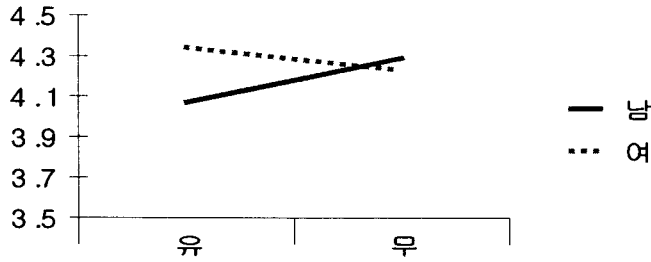
전 체	합계	유	78	4.28	.39
		무	53	4.22	.41
		소계	131	4.26	.40
	남	유	67	4.07	.56
		무	49	4.29	.44
		소계	116	4.16	.52
	여	유	78	4.34	.33
		무	56	4.23	.47
		소계	134	4.29	.40
합계	유	145	4.21	.47	
	무	105	4.26	.45	
	소계	250	4.23	.46	

<표 III-8> 학년별, 성별, 모직업 유무별 모에 대한 애착의 차이 검증

변량원	SS	df	MS	F
학년	.06	1	.06	.27
성별	.69	1	.68	3.40
모직업유무	.17	1	.17	.84
학년 * 성별	.38	1	.38	1.88
학년 * 모직업유무	.62	1	.62	3.08
성별 * 모직업유무	1.65	1	1.65	8.19**
학년 * 성별 * 모직업유무	.24	1	.24	1.19

** p<.01

앞의 <표 III-7>을 기초로 하여 학년별, 성별, 모직업 유무별 전체 모에 대한 애착 점수를 변량 분석한 결과는 위의 <표 III-8>과 같다. 아동의 모에 대한 애착은 성과 모직업 유무와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19, p<.05). 그 내용을 보면 남자 아동에서는 모의 직업이 없는 아동들(M=4.29, SD=.44), 여자 아동에서는 모의 직업이 있는 아동들(M=4.34, SD=.33)의 모에 대한 애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림 III-2] 와 같다. 그러나 학년, 모직업 유무별, 학년과 성과의 상호작용, 학년과 성과 모직업 유무와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 전체 모에 대한 애착의 성별과 모직업 유무와의 상호작용 효과

나. 하위요인별 모에 대한 애착

연구 대상 아동의 모에 대한 애착 하위 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 <표 III-9>와 같다.

<표 III-9> 모에 대한 애착의 하위 영역별 비교

()안은 인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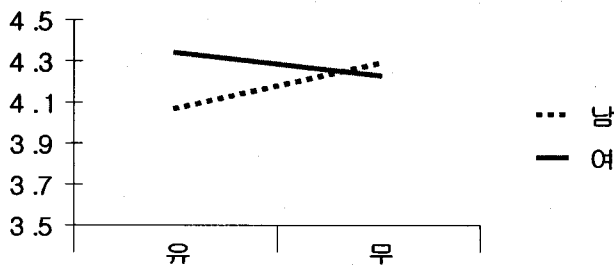
변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M	SD	M	SD	M	SD
학년별	1학년(119)	4.33	.71	4.26	.55	3.93	.78
	2학년(131)	4.32	.59	4.26	.41	4.16	.51
성별	남(116)	4.24	.69	4.21	.55	4.00	.76
	여(134)	4.40	.61	4.30	.41	4.12	.55
모직업	유(145)	4.30	.63	4.26	.48	4.00	.75
	무(105)	4.35	.68	4.25	.49	4.12	.51
1학년	모직업유(67)	4.27	.70	4.26	.54	3.73	.91
	모직업무(52)	4.40	.72	4.26	.56	4.19	.45
2학년	모직업유(78)	4.33	.57	4.26	.42	4.22	.46
	모직업무(53)	4.30	.63	4.25	.40	4.05	.57
남	모직업유(67)	4.13	.74	4.15	.57	3.83	.90
	모직업무(49)	4.38	.61	4.29	.51	4.15	.47
여	모직업유(78)	4.45	.49	4.36	.36	4.15	.55
	모직업무(56)	4.33	.74	4.22	.47	4.09	.55

<표 III-10> 학년별, 성별, 모직업의 유무별 모에 대한 애착 의사소통의 차이 검증

변량원	SS	df	MS	F
학년	.04	1	.04	.09
성별	1.11	1	1.11	2.65
모직업유무	.20	1	.20	.49
학년 * 성별	.40	1	.40	.96
학년 * 모직업유무	.35	1	.35	.84
성별 * 모직업유무	2.13	1	2.13	5.11*
학년 * 성별 * 모직업유무	.25	1	.25	.60

* p<.05

학년별, 성별, 모직업 유무별 모에 대한 애착의 의사소통 점수를 변량 분석한 결과는 위의 <표 III-10>과 같다. 아동의 모에 대한 애착은 성과 모직업 유무와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5.11, p<.05), 여자 아동에서는 모의 직업이 있는 아동들(M=4.45, SD=.49), 남자 아동에서는 모의 직업이 없는 아동들(M=4.38, SD=.61)의 모에 대한 의사소통이 가장 높았으며 [그림 III-3] 과 같다. 학년에 따른 모에 대한 애착은 p>.05 수준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직업 유무별, 학년과 성과의 상호작용, 학년과 성과 모직업 유무와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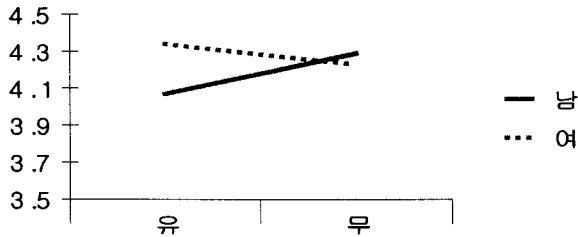
[그림 III-3] 모에 대한 애착 의사소통 영역의 성별과 모직업 유무와의 상호작용 효과

<표 III-11> 학년별, 성별, 모직업의 유무별 모에 대한 애착 신뢰감의 차이 검증

변량원	SS	df	MS	F
학년	.00	1	.00	.02
성별	.34	1	.34	1.48
모직업유무	.00	1	.00	.01
학년 * 성별	.09	1	.09	.41
학년 * 모직업유무	.00	1	.00	.00
성별 * 모직업유무	1.17	1	1.17	5.08*
학년 * 성별 * 모직업유무	.09	1	.09	.37

* p<.05

학년별, 성별, 모직업 유무별 모에 대한 애착의 신뢰감 점수를 변량 분석한 결과는 위의 <표 III-11>과 같다. 성과 모직업 유무와의 상호작용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08, p<.05$). 즉, 여자 아동에서는 모의 직업이 있는 아동들($M=4.36, SD=.36$), 남자 아동에서는 모의 직업이 없는 아동들($M=4.29, SD=.51$)의 모에 대한 신뢰감이 가장 높았으며 [그림 III-4] 와 같다. 그러나, 학년이나 성별, 모직업 유무에 따른 모에 대한 신뢰감은 $p>.05$ 수준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과 성과의 상호작용, 학년과 모직업 유무와의 상호작용, 학년과 성과 모직업 유무와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III-4] 모에 대한 애착 신뢰감 영역의 성별과 모직업 유무와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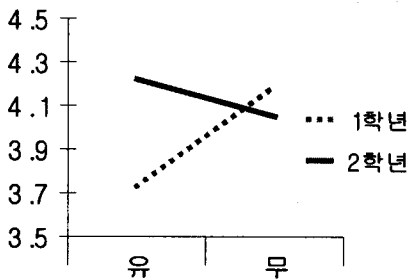
<표 III-12> 학년별, 성별, 모직업의 유무별 모에 대한 애착 소외감의 차이 검증

변량원	SS	df	MS	F
학년	1.90	1	1.90	4.93*
성별	.82	1	.821	2.12
모직업유무	1.22	1	1.22	3.15
학년 * 성별	1.23	1	1.23	3.18
학년 * 모직업유무	5.87	1	5.87	15.23***
성별 * 모직업유무	1.87	1	1.87	4.85*
학년 * 성별 * 모직업유무	.65	1	.65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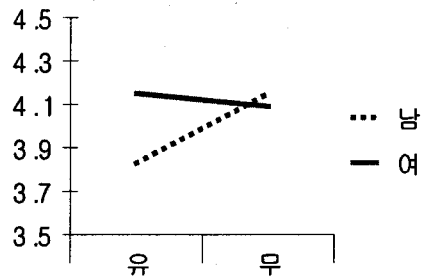
* $p<.05$, *** $p<.001$

학년별, 성별, 모직업 유무별 모에 대한 애착의 소외감 점수를 변량 분석한 결과는 위의 <표 III-12>와 같다. 아동의 모에 대한 소외감은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F=4.93, p<.05$), 1학년 아동들($M=3.93, SD=.78$)이 2학년 아동들($M=4.16, SD=.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과 모직업 유무와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15.23, p<.001$), 1학년에서는 모의 직업이 있는 아동들($M=3.73, SD=.91$), 2학년에서는 모의 직업이 없는 아동들($M=4.05, SD=.57$)의 모에 대한 소외감이 높

있으며 [그림 III-5] 와 같다. 또한 성과 모직업 유무와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85, p<.05$). 남자 아동들 중에는 모의 직업이 있는 아동들 ($M=3.83, SD=.90$)과 여자 아동들 중에는 모의 직업이 없는 아동들($M=4.09, SD=.55$)의 모에 대한 소외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림 III-6] 과 같다. 그러나 성별, 모직업 유무, 학년과 성의 상호작용효과와 학년과 성과 모직업 유무와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가 보이지 않았다.



[그림 III-5] 모에 대한 애착 소외감 영역의 학년과 모직업 유무와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III-6] 모에 대한 애착 소외감 영역의 성별과 모직업 유무와의 상호작용 효과

3. 부에 대한 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가. 부에 대한 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표 III-13> 부에 대한 애착의 하위영역과 학교생활적응 하위 영역과의 관계

	담임교사	친구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	학교행사	전체
의사소통	.39**	.41**	.45**	.41**	.54**	.55**
신뢰감	.38**	.38**	.47**	.37**	.47**	.53**
소외감	.12	.11	.19*	.20**	.20**	.20**
전체	.40**	.41**	.49**	.42**	.54**	.57**

* $p<.05$, ** $p<.01$

<표 III-13>은 아동의 부에 대한 애착의 하위영역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상관계수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부에 대한 애착의 하위변인인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 계수는 학교생활적응의 전영역인 담임교사, 친구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 학교행사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 전체에

서도 .55($p < .01$)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에 대한 애착의 신뢰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 계수는 학교생활적응의 전 영역인 담임교사, 친구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 전체에서도 .53($p < .01$)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에 대한 애착의 소외감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 계수는 담임교사, 친구관계 적응을 제외하고 학습활동, 학교규칙, 학교행사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며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 전체에서도 .20($p < .01$)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 부에 대한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부에 대한 애착 하위 영역 중 어느 변인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14> 부에 대한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β	t	R	R ²
의사소통	.29	.35	4.29***	.57	.33
신뢰감	.27	.24	2.94**		
소외감	.06	.26	1.03		
F=40.62***					

** $p < .01$, *** $p < .001$

분석결과 <표 III-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부에 대한 애착의 하위영역 중 부의 의사소통($\beta = .35$)이 $p < .001$ 수준에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감($\beta = .24$)도 $p < .01$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에 대한 소외감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가. 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표 III-15> 모에 대한 애착의 하위영역과 학교생활적응 하위 영역과의 관계

	담임교사	친구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	학교행사	전체
의사소통	.36**	.37**	.34**	.40**	.42**	.47**
신뢰감	.38**	.40**	.39**	.42**	.40**	.48**
소외감	.03	.10	.12	.15*	.11	.13*
전체	.35**	.39**	.38**	.43**	.41**	.49**

*p<.05, **p<.01

<표 III-15>는 아동이 지각한 모 애착의 하위영역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상관계수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모에 대한 애착의 하위변인인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 계수는 학교생활적응의 전영역인 담임교사, 친구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 학교행사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 전체에서도 .47(p<.01)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뢰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 계수는 학교생활적응의 전영역인 담임교사, 친구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 학교행사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 전체에서도 .48(p<.01)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에 대한 애착의 소외감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 계수는 학교규칙에서만 유의한 상관관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 전체에서는 .13(P<.05)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나. 모에 대한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표 III-16> 모에 대한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β	t	R	R ²
의사소통	.24	.24	3.04**		
신뢰감	.43	.32	4.14***	.53	.28
소외감	.00	.00	.03		

F=31.15***

** p<.01, *** p<.001

분석결과 <표 III-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모에 대한 애착의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β=.24)이 p<.01 수준에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감(β=.32)이 p<.001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에 대한 소외감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 학년별, 모직업의 유무별에 따른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의 차이를 알아보고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학교생활적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을 연구 문제와 관련지어 몇 가지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부에 대한 애착을 학년별, 성별, 모의 직업 유무별로 살펴보면, 부에 대한 애착관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부에 대한 애착이 높았다. 이는 모의 취업유무와 자녀의 애착수준에서 남자 아동에 비해 여자 아동의 애착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김광자(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학년별, 모의 직업 유무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부에 대한 애착은 전반적으로 학년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정영옥(2002), 이지윤(2000), 오송희(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위 영역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소외감 영역에서만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내용을 보면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부에 대한 소외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년과 모직업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1학년에서는 모의 직업이 있는 아동, 2학년에서는 모의 직업이 없는 아동의 부에 대한 소외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모의 직업 유무가 애착에 영향을 준다는 이은경(1993)의 연구결과가 위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모의 직업유무는 모에 대한 애착 뿐 아니라 부에 대한 애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의 모에 대한 애착을 살펴보면 학년별, 성별, 모의 직업 유무별에서는 성별과 모직업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 아동은 모의 직업이 없는 아동들, 여자 아동에서는 모의 직업이 있는 아동들의 모에 대한 애착이 높게 나타났다. 여자 아동은 남자 아동에 비하여 사교적이며 자기표현이 더 높고(고명순, 1997)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에 대한 애착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하위 영역에서는 의사소통영역과 신뢰감, 소외감에서 성별과 모직업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자 아동에서는 모의 직업이 있는

아동들, 남자 아동에서는 모의 직업이 없는 아동들의 모에 대한 의사소통과 신뢰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모에 대한 소외감에서는 남자 아동의 경우 모의 직업이 있는 아동들, 여자 아동의 경우 모의 직업이 없는 아동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외감은 1학년 아동들이 2학년 아동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과 모직업 유무와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학년에서는 모의 직업이 있는 아동들, 2학년에서는 모의 직업이 없는 아동들의 모에 대한 소외감이 높게 나타났다. 모의 직업이 있는 아동들의 모에 대한 애착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직장에 나가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보다 밝은 쪽의 감정을 표명하고 강요하지 않고 적의를 나타내지 않으며 보다 많은 감정이입을 보여 더 보살피려 한다는 Hoffman(1972)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경우 자식을 잘 돌봐주지 못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자식과 같이 있는 시간에는 자식에게 애정을 더 많이 쏟으며, 또한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 자식이 원하는 것을 잘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상호작용 효과에서 남자 아동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수록 충분한 대화를 나누게 되며 이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어머니와 가정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 주는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아는 어머니와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보다 정서적으로 믿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냄으로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애착의 결과 애착의 하위변인들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들과 대부분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애착의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 신뢰감은 학교생활적응의 전 영역에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소외감에서는 부에 대한 애착에서 담임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애착의 소외감은 학교규칙에 있어서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학년별, 성별, 모직업 유무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외감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의사소통과 신뢰감 영역에서는 학교생활의 전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에 대한 애착 전영역과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유복귀희, 2003; 정세화, 200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의사소통과 신뢰감에서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소외감에서는 부분적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난 최문정(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부·모에 대한 애착의 의사소통과 신뢰감이 높을수록 아동이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애착이 아동의 학업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적응과 긍정적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정세화, 2003; 이상훈, 2005)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안정된 애착이 인지적 과정에서 자아존중감 또는 자아효능감 요소에(정영옥, 2002; 유복귀희, 2003; 심정필, 2004)영향을 주어 학교생활적응

을 잘 할 수 있게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에 대한 애착은 의사소통 영역, 모에 대한 애착은 신뢰감 영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에 대한 애착에서 의사소통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지수경(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통하여 어머니에 비해 적은 시간을 아동과 함께하는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보다 많은 대화를 나누려 노력하고 함께 있는 시간에 자녀에게 애정을 더 많이 쏟도록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모에 대한 애착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볼 때 아동이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일관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부에 대한 애착은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높았다. 하위 영역을 보면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부에 대한 소외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년과 모직업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소외감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학년에서 모의 직업이 있는 아동들, 2학년에서 모의 직업이 없는 아동들의 부에 대한 소외감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모에 대한 애착은 성별과 모직업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의 직업이 없는 남자 아동들, 모의 직업이 있는 여자 아동들의 모에 대한 애착 전체와 하위영역인 의사소통과 신뢰감이 높게 나타났다. 소외감은 남자 아동들의 경우 모의 직업이 있는 아동들, 여자 아동들의 경우 모의 직업이 없는 아동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1학년 아동들이 2학년 아동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학년에서 모의 직업이 있는 아동들, 2학년에서 모의 직업이 없는 아동들의 소외감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모에 대한 애착 전체는 학교생활적응의 전 영역에서 대체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애착의 하위요인 중 부에 대한 애착에서는 의사소통 영역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에 대한 애착에서는 신뢰감 영역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활용하고 앞으로의 후속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도농 복합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화된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연구대상의 선택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와의 애착이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모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아동 생활지도에 있어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교사가 아동과의 상담 장면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동의 행동을 바로 이해하고 아동 상담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상담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독립된 변인의 영향만을 연구하여 본 연구와 관련하여 결과를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에서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인 소외감영역이 학교생활적응에 부분적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추후에 연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고경애(1984).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광자(2003). 어머니의 취업이 자아개념과 애착수준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교성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정필(2004). 초등학생의 애착안정성과 자아지각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송희(1998).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옥 정(1997).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 성향의 관계-지각된 유능과(Perceived Competence)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경자(2005). 애착이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복귀희(2003). 아동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상필(1990).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따른 학업 성적 및 행동 특성의 차이분석.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상훈(2005). 부모 및 또래애착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윤(2000).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애착 및 사회성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세화(2003). 애착안정성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학교적응.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영옥(2002). 아동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지수경(2001).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문정(2006). 아동의 부, 모, 또래 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owlby, J.(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 Cassidy, J.(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 Year old. *Child Development*, 59, 121-134.
- Hoffman, L. W.(1974). Effect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child : *A Psychology*, 10, 204-228.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o Parent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Children

Jin, Mi-Hwa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ocial area of children moves to school from family. Attachment to parents of children influences Adaptation of new environment. Development and adaptation of whole life are based on attachment that was formed the early days period of life. This study aims at finding out how are the factors lik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o parent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children.

The targets of the study are 260 kids of the 1st grade and the 2nd grade that are collected at primary school of K city in Jeonlabuk-Do. As for measurement tool that was used for this study, it used the questionnaire for parents Attachment which OK Jeong(1997) adopted from IPPA-R that was manufactured by Armsden & Greenberg(1987), and the questionnaire on adaptation to the school life made by Byung soo, Min(1991), and it found means(M), standard deviation(SD) as for the collected data, and it practiced three 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the girls were more attached to father than Boys. According to the contents, alienation to father of boys is higher than that of girls. Also, grade of children and employment or unemployment of mothers factors mutuality effect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rea of alienation.

Second, the children's attachment to mother that the Kids perceived in total has significant differences statistically according to gender of children and employment or unemployment of mothers factors mutuality effect. Boys of unemployment of mothers and girls of employment of mothers are more attached to mother.

Third, the children's attachment to parent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in the area of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dimension of communicate, by fathers were shown to affect largely to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the kids and among the sub-areas of attachment to fathers, the dimension of confidence by parents were shown to affect largely to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the kids.

As we saw the study result above, we could confirm that children's attachment to parents had significant relations with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the kid, and furthermore, those were affecting importantly to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kid. So, we could know that it is important for parents and children to attach mightly so that can be increased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the kids.